

# 皇南洞古墳出土

## 神龜形土器와 角坏및角坏받침

— 新羅·伽耶地域の 異形土器와 關聯하여 —

李 殷 昌

### 一 序 言

一九七三年에 國費로 味鄒王陵地區淨化事業인 곧 古墳公園을 造成하는 工事が進行되고 한편으로는 皇南洞 第一五五號古墳(天馬塚)(1)과 皇南洞 第九八號古墳(瓢形墳)(2)을 發掘調査하였다. 그리고 이 古墳公園을 造 成工事に 걸리는 古墳과 廢墳을 整理하는 古墳發掘調査가 施行되었다.

皇南洞味鄒王陵淨化事業에 따르는 古墳發掘調査가 展開되고 이 發掘 調査에서 數 많은 大小古墳이 發掘調査되었다. 그리고 出土遺物도 多種 多樣하였고 數 많은 量的 副葬品이 收拾되었다. 土器도 多量出土되었는 데 그 質과 形態와 紋樣이 또한 多樣하였다. 그리고 이번 發掘調査에서 는 特殊한 異形土器가 여러개 出土되어 學界의 注目을 끌고 있다. 嶺南 大學校 發掘調査團에 의하여 味鄒王陵前地域 C地區 神龜塚第三墓塚에서 「神龜形土器」가 出土되고 同 C地區 第七號古墳에서 「角坏및 角坏받 침」이 出土되었다.

「神龜形土器」와 「角坏및角坏받침」에 대하여는 이미 拙稿「皇南洞古墳 發掘調査概報」에 의하여 그 概要를 記述發表한 바 있다. 그런데 上述한 바와 같은 概報를 통하여 發表된 概要만으로는 이들 異形土器의 形態의 인 系譜라든지 性格上의 問題를 詳細히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研究된바 있어 若干 새로운 進展을 보았기로 그 詳細한 것을 본 誌를 통하여 報告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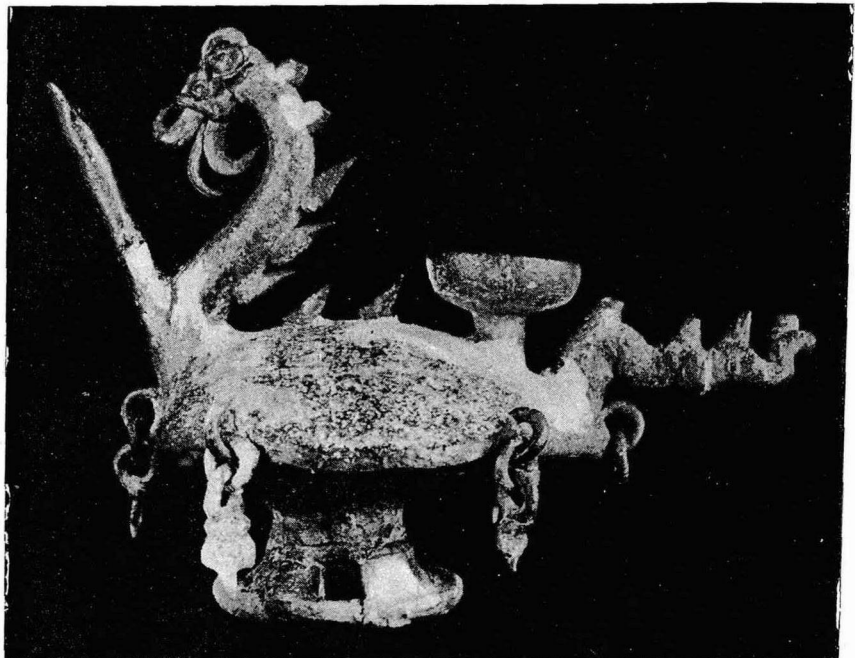


圖 1. 神龜形土器

### 二 神龜形土器와 角坏의 形態와 그 性格

#### 1 神龜形土器

(1) 神龜形土器의 形態  
神龜形土器는 胎土가 緻密하고 高火度の 窯燒品으로 硬質의 黝黑色에 白色으로 부풀은 釉가 보이는 典型的인 硬質系의 陶質土器이다. 이는

臺形脚部와 龜形器身部로 區分된다. ① 臺脚部는 突帶文을 둘러 一段構造를 이루고 上下段에는 透窓이 交互로 열려있고 脚底端은 말려 올라갔다. ② 臺脚이 받고 있는 器身部는 底面이 마치 거북(龜)의 배와 같고 上面은 거북의 등과 같아 龜甲文은 없으나 龜甲形을 이루었다. ③ 그리고 이 龜甲 돌레에 瓔珞飾을 돌렸으니 龜甲의 四隅에 各各一個씩 앞가슴과 뒤꼬리 밑에 各各一個씩 都合六個의 瓔珞이 달려있는데 瓔珞飾은 古新羅와 伽耶의 異形土器 또는 瓔珞飾土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器體에 고리(環)를 달고 이 고리에 2個의 고리를 連結시켜 매달고 끝에 心葉形 垂下飾을 달았다. 그리고 이 龜甲의 앞에는 거북의 목(頸)과 머리(頭部)가 나와 있어 怪異한 形態를 하고 있고 뒤에는 꼬리가 나와 屈曲을 지으며 꿈틀거리는 奇異한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頸部로부터 背部를 거쳐 尾部에 이르는 「갈기」가 나부끼는 모양으로 쪽쪽 뻗어 注目되며 當時 工藝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特色이라 하겠다. 이는 마치 奇異한 神龜形을 이루고 있어 이에 神龜形土器로 名稱하는 바인데 놀라운 意匠과 手法는 他例를 보지 못하는 特出한 遺品이라 하겠다.

總高는 一五·一cm이며 앞의 注出管에서 꼬리까지 全長 一七·五cm이며 ① 臺脚部의 高는 三·八cm 器底徑이 五·九cm이며 ② 龜身(器身)部의 高는 四cm 前後 길이가 一〇·五cm이며 ③ 頸部의 高는 七·二cm 꼬리(尾)의 全長이 五·五cm ④ 注入口의 高는 一·八cm 口徑은 三·七cm ⑤ 注出管의 全長은 五·三cm 管體의 直徑은 一·一cm이다.

이 神龜形土器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意圖가 있으니 첫째로 臺脚部의 特設과 背面의 注入口와 胸前部의 注出管 등은 容器的인 用途의 意匠을 지니고 있는 構造이다. 둘째로는 龜形의 器體와 奇怪한 表現을 한 頭部와 頸部와 尾部 등 그리고 나부끼는 갈기와 華麗한 瓔珞飾 등은 神龜의 呪術的인 뜻을 지니고 있는 形態이다. 이 神龜形土器는 前者의 意匠 보다는 後者의 뜻이 强하다고 볼 수 있겠다.

A 容器的인 面……神龜形土器가 容器的인 形態로서 注目되는 것은 첫째 받침은 臺脚上에 龜形의 器身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伽耶地域과

新羅地域에서는 動物形 또는 物形 등으로 된 土器의 器身을 臺脚上에 올려 놓은 構造를 한 異形土器의 類例가 많다. 곧 伽耶地域에서 出土된 各種 有臺馬形土器·有臺鴨形土器 등 動物形系와 또 各種 有臺車形土器 有臺舟形土器·有臺草履形土器 등 物體形系가 있으며 이는 象形的인 意匠이 爲主가 된 土器로 容器的인 意匠이 兼備한 土器라 하겠다. 이와 같은 臺脚上에 받쳐올려놓은 形式을 取한 것은 供獻的인 뜻을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被葬者를 爲한 供獻土器의 一種이라 하겠다.

둘째로는 注入口와 注出管의 特設이다. 앞에 記述한 伽耶地域 有臺馬形土器·有臺鴨形土器·有臺車形土器·有臺草履形土器 등은 臺脚上에 받쳐올려놓은 供獻的 異形土器로서 모두 盃形容器(3)의 形態로 處理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神龜形土器는 갈매기 모양으로 된 注入口가 背上에 붙고 管狀으로 된 注出管이 앞가슴에 붙어 마치 注子(추진자) 形態를 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이러한 注子形式의 容器形態를 갖춘 土器로는 一般土器인 것은 金鈴塚出土 瓔珞飾有臺注口壺(節附注口陶壺)·東亞大學所藏 瓔珞飾有臺注口壺(瓔珞장식추진자) 鳩岩洞 第五六號古墳 發掘品인 有臺注口壺·昌寧 桂南里第一號古墳 發掘品인 注口瓶 등(4)이 있다. 그리고 갈매기 모양으로 된 注入口와 管狀으로 된 注出口의 構造로 된 異形土器로서는 金鈴塚에서 出土된 騎馬人物像土器二個가 있고 또 이번에 神龜形土器가 出土되었다. 注子形式의 異形土器는 新羅地域에 分布된 特色이라 하겠는데 특히 神龜形土器는 騎馬人物像土器에 比하여 더욱 注子器에 酷似하여 典型的인 注子(추진자)의 形態를 갖춘 것으로 後代의 우리나라 注子(추진자)의 系譜를 따질 수 있는 始源型에 두어야 할 遺品이다.

B 象形的인 面……神龜形土器의 象形的인 面에서 考察하여 본다면 첫째로 거북의 모양을 본 딴 龜形土器라는 것이다. 神龜形土器의 龜形構造를 한 性格은 後述하겠으나 이 神龜形土器의 가장 注目되고 있는 點은 龜形을 하고 있는 것이다. 古新羅와 伽耶의 古墳에서 出土된 龜形土器系列의 土器는 다음과 같다. ① 龜形線刻으로 裝飾한 龜形線刻繪文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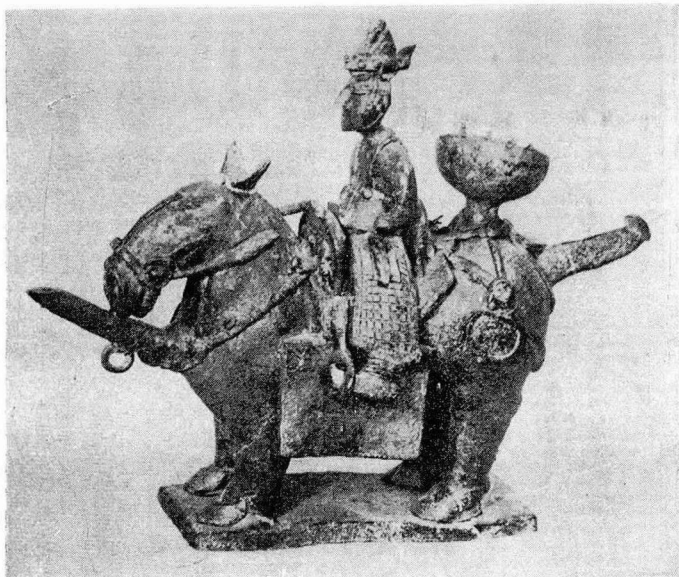


插圖1 金鈴塚出土 騎馬人物像土器(其 1)



插圖2 金鈴塚出土 騎馬人物像土器(其 2)

器의 例로 鷄林路第四七號古墳에서 出土된 線刻繪文高坏蓋가 있다. ② 또 龜形像土偶를 附着시키어 裝飾하는 龜形裝飾土器의 例로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土偶裝飾高坏蓋・慶州博物館 所藏 土偶裝飾高坏 등이 있다. ③ 또 土器 自體가 龜形으로 된 象形土器은 大邱 達城公園 出土 龜形土器가 있다. ⑤.

이와 같이 多種多樣的한 龜形土器의 類例가 거북(龜)모양을 單 象形的인 意匠을 한 構造面에도 重要な 뜻이 있지만 後述하고자 하는 當時上古社會에서의 거북(神龜)信仰이 窺이기도 하여 注目된다. 둘째로 이 神龜形土器의 形態가 龜形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如鳥・如

馬・如龍의 形態를 차아내어 怪異한 龜形을 形成하고 또한 頭部로부터 背部를 거쳐 尾部에 이르기 까지 疾風에 나부끼는 모양의 平行線을 取한 「갈기」의 모듬 등의 技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神龜形土器의 「머리」와 「갈기」의 모듬은 三國時代의 古墳壁畫와 工藝品에 나타난 天馬圖・四神獸圖・龍頭飾・鳳凰紋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通溝地方의 高句麗古墳인 舞踊塚의 天馬圖・三室塚의 天馬圖의 類例를 볼 수 있고 慶州 天馬塚에서 出土된 障泥의 天馬圖의 類例를 볼 수 있다. ② 그리고 通溝地方의 역시 高句麗古墳인 四神塚의 蒼龍・白虎・朱雀・玄武 등 四神獸圖의 類例를 볼 수 있다. ③ 또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서 出土된 鏤頭大刀의 龍頭飾과 百濟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鏤頭大刀의 龍頭飾의 類例를 볼 수 있다. ④ 또 新羅의 慶州 天馬塚에서 出土된 彩畫板의 鳳凰圖・百濟의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木製頭枕의 鳳凰圖・外里寺址에서 出土된 紋樣塼의 鳳凰文 등의 類例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天馬圖・四神獸圖・鳳凰紋・龍頭飾 등은 地域과 時代에 따라 若干 다른 點을 볼 수 있기는 하나 모두 알승달승한 表現으로 神龜形土器의 「갈기」와 「頭部」의 表現과 恰似한 形態와 樣式을 보이고 있어서 注目된다. 이렇게 神龜形土器는 거북(神龜)의 形態를 表現한 것이 事實이나 或은 天

馬와 같고 或은 鳳凰과도 같고 或은 龍과도 같아 이에 鳥·獸·龍의 形態가 嚴格히 區別되어 있지 않고 서로 分間하기 어려운 모습을 한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神龜形土器의 「갈기」와 「頭部」의 表現手法은 中國 六朝樣式的 影響을 받은 것이다.

(2) 神龜形土器가 지니고 있는 性格

이제 「神龜」 곧 「거북」의 모양을 본딴 土器의 그 意匠이 어떠한 것인지 古代人의 「거북」에 대한 思想과 이 神龜形土器와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 神龜形土器가 지니고 있는 性格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龜頭와 蛇頭가 다 같이 비슷한 樣相으로 表現된 것은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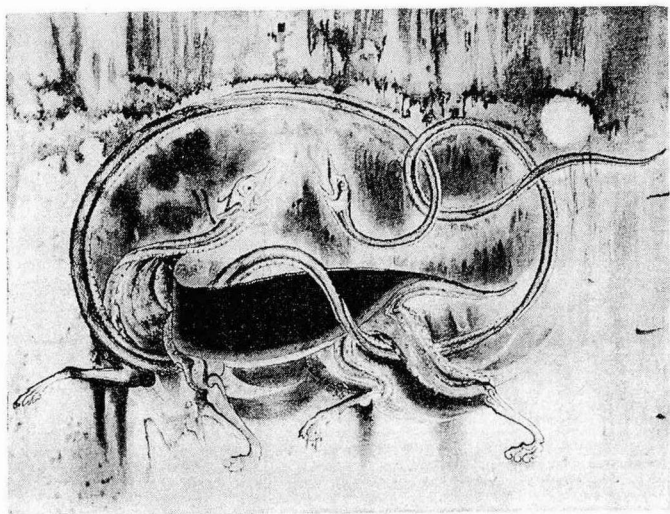


插圖3 遇賢里大墓 玄武圖(高句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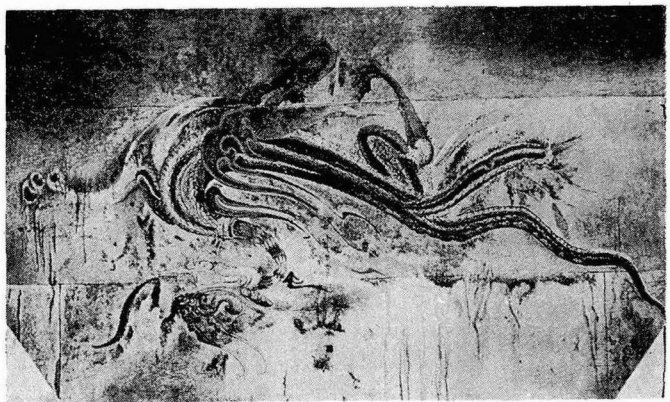


插圖4 遇賢里大墓 青龍圖(高句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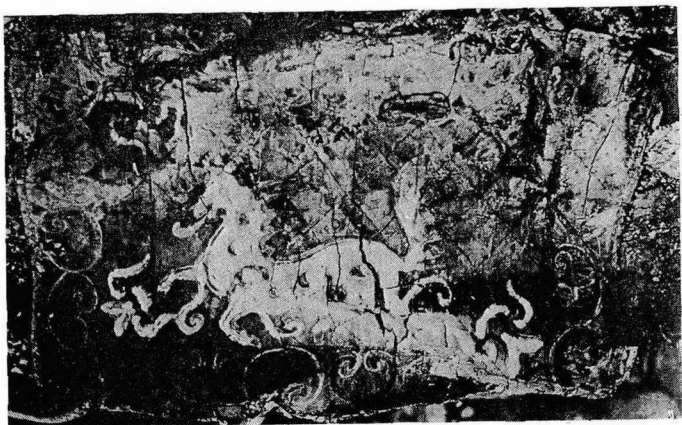


插圖5 天馬塚出土 白樺樹皮製障泥 天馬圖(古新羅)

은 가담이 있다. 本草綱目 卷四三 諸蛇條에 「龜蛇同氣 而有呻蛇之龜」라고 하고 또 「蛇以龜體爲雌」라 하였으며 그리고 說文解字에 「龜鼈之類 天性無雌 以蛇爲雄」이라 하였다. 곧 거북(龜)과 뱀(蛇)은 同氣間이라 하였고 또 한편 거북(龜)은 뱀(蛇)을 수컷(雄)으로 삼아 거북(龜)과 뱀(蛇)은 雌雄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後漢書 卷五一 王梁傳에는 「玄武北方之神 龜蛇合體」라 하여 거북(龜)과 뱀(蛇)이 한 몸을 이루어 北方神 곧 玄武가 되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그리하여 本草綱目 卷四五 水龜條에 「按許慎說文云 龜頭與蛇頭同」이라 하였고 또 說文解字에도 「龜頭與蛇頭同」이라 하여 龜頭와 蛇頭가 同一함을 說明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옛記錄에서 거북(龜)과 뱀(蛇)이 同氣間이고 雌雄이며 또한 合體라 일렀고 또한 龜頭와 蛇頭가 同一한 樣相이라고 說明되었거니와 그 龜頭와 蛇頭가 同一한 形態로 表現된 類例가 許多하다. 그리하여 龜頭와 蛇頭의 共通樣相을 지닌 것은 殷代 青銅器 紋樣(6)에서도 나타나 있고 高句麗 古墳인 通溝 四神塚과 遇賢里 大墓의 四神圖 가운데에서 玄武圖의 龜頭와 蛇頭의 形態가 同一함을 볼 수 있다.

둘째 龜頭와 蛇頭가 同一한 形態를 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한편 龜頭와 龍頭가 恰似한 形態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淮南子에는 「介鱗生先龍 先龍生元龜 而後靈龜庶龜」라 하여 용(龍)이 거북(龜)을 낳았다고 하였고 前漢書 卷二四 食貨志 九에 「天用莫如龍地



插圖6 紋樣埴의 鳳凰文(百濟)  
(扶餘郡 窺岩面 外里寺址出土)

用莫如馬 人用莫如龜」라 하여 「天과 龍」 「地와 馬」 「人과 龜」의 關係 곧 天·地·人 三才와 그리고 各各 이에 따르는 용(龍)·말(馬)·거북(龜) 등 動物神이 關係지워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本草綱目에는 「蛇頭龍頸」이라 하고 또 爾雅에는 「蛇頭龍翅」라 하였다. 곧 거북(龜)의 모습을 說明하였으니 蛇頭와 龍頸과 같다고 하고 또 蛇頭와 龍翅와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거북(龜)의 모습과 용(龍)의 모습이 恰似하게 表現되었다 하니 龜頭와 龍頸의 形態가 거의 酷似한 樣相으로 表現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龜頭와 龍頸가 恰似한 樣相으로 나타나는 類例가 있으니 곧 中國의 例로 鄭州 出土 青銅器 龜形紋樣的 龜頭와 西周的 青銅器 蛇龍紋樣的 龍頭가 共通樣相을 보인다(7). 그리고 韓國의 例도 許多하다. ① 于先 생각되는 것은 石碑에 사용된 龜趺(碑座)와 螭首(碑蓋)의 變化樣相이다. 우리나라 石碑의 龜趺에 나타난 龜頭形과 螭首에 보이는 龍頭形의 變化를 살펴보면 統一新羅初의 太宗武烈王陵碑의 龜趺와 金陽 墓碑의 龜趺는 그 龜頭가 寫實的이어서 螭首의 龍頭와는 그 形態의 類似點이 若干의 差異가 있지만 그것이 漸次 怪獸의 頭形으로 變化하여 갔다. 新羅末과 高麗代에 이르러서는 龜趺의 龜頭는 龍頭化하여 螭首의 龍頭와 같은 形態로 龜頭와 龍頭가 形態上으로 區別되지 않는 同一樣相을 이루기도 하며 龜頭는 如意珠까지 물고 있는 例(8)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朝鮮王朝에 이르러서는 거북선(龜船)의 머리(頭)가 龍頭形이고(9) 民畫에 보이는 神龜圖의 머리(頭)가 또한 龍頭形을 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龜頭의 形態가 龍頭의 形態와 같이 表現되는 事實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셋째 龜頭의 形態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蛇頭와 龍頭가 恰似하게 表現되고 있지만 이밖에 天馬·鳳凰 등의 頭形도 앞에 말한 龜頭·蛇頭 龍頭와 같이 서로 恰似하게 表現되고 있다. 淮南子에 「萬物 羽毛鱗介 皆祖於龍이라 하여 羽禽·毛獸·鱗魚·介龜 등 여러 動物 들이 모두 龍을 先祖로 삼고 있다 한다. 그리하여 鳳凰·麒麟·鯢鯁·元龜를 龍이 낳았다 하였으며 그리고 모든 새(鳥)와 짐승(獸)과 물고기(魚)와 거북

(龜)들을 차례로 낳았다고 說明되고 있다. 그리고 中國에서는 일찌기 龍·鳳·龜·麟을 四靈動物視하였고 그것이 戰國時代부터 發達한 陰陽 또는 五行思想과 關聯하여 斬次 青龍·白虎·朱雀·玄武 등 四神獸로 變遷하였다. 그리하여 龜頭와 蛇頭와 龍頭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類似한 形態로 表現되었음을 上述한 바이지만 이밖에 鳳凰과 天馬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恰似한 形態로 된 頭形을 表現한 것을 볼 수 있다. 高句麗의 古墳壁畫에 나타난 例로 ① 天王地神塚의 天王圖에 보이는 鳳凰과 主室 東壁의 千秋墨書에 보이는 鳳凰·② 遇賢里大墓 玄室의 怪鳥·鳳凰·麒麟 등은 모두 頭部의 形態가 怪異한 表現으로 龜頭·蛇頭·龍頭와 더 붙어서로 恰似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百濟·新羅의 工藝品에 나타난 例로 ① 慶州 天馬塚 出土 障泥의 天馬圖·彩畫板의 鳳凰圖 ② 公州 武寧王陵 出土 木製頭枕의 鳳凰文·扶餘 外里寺址 出土 紋樣塼의 鳳凰



插圖7 盤龜臺岩刻畫  
 (慶尙南道 蔚州郡 彥陽面 盤龜臺)

文 등도 역시 龜頭·蛇頭·龍頭와 더불어 그 頭部의 形態를 怪異한 모습으로 서로 恰似하게 表現된 事實을 前述한 바 있다. 神龜形土器가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나부키는 「갈기」의 表現을 비롯하여 그 頭部의 形態가 當時 繪畫와 工藝品에 보이는 龍·鳳凰·天馬 등의 頭形과 類似樣相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곧 中國의 傳統的인 在來思想에 依하여 龜頭가 龍頭 또는 蛇頭와 같고 다른 鳥獸와도 共通된 樣相으로 表現하는 影響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點에서 中國의 崇龜思想이 戰國時代 以後로부터 龜蛇合體로 表現되는 四神獸의 하나인 北方神 곧 「玄武」로서 神龜形土器가 造成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겠다. 그러나 神龜形土器는 「龜形」이 곧 「玄武」라고 解釋하기에는 여러모로 釋然치 않은 點이 많고 오히려 新羅의 固有한 面에서 考察되어야 할 點이 더 많지 않은가 한다.



插圖8 動物文 高環蓋  
 (慶州 鷄林路 第47號古墳出土)



插圖9 動物土偶裝飾高環蓋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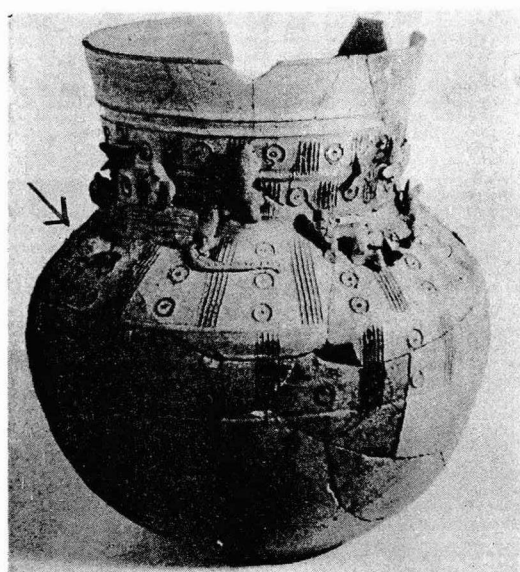


插圖10 琴奏樂土偶裝飾長頸壺  
〈慶州味鄒王陵境內 第16區域 第30號古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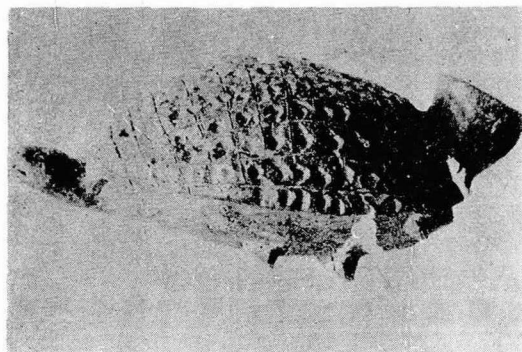


插圖11 龜形土器〈大邱 達城出土〉

그것은 古代로 부터의 新羅 固有의 거북(龜) 信仰思想에 中國의 玄武 思想이 添加된 複合狀態일 것이고 그보다도 오히려 韓國의 在來로 부터 의 거북(龜)에 대한 信仰思想을 根幹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sup>13)</sup>.

韓國의 先史時代와 古代에 있어서의 거북(龜) 信仰의 遺跡과 遺物이 許多하다. 첫째 先史時代의 거북(龜) 信仰의 例로는 岩刻畫에 나타난 類 例를 볼 수 있다. 盤龜臺 岩刻畫에는 性器를 露出한 男子人物像이 있고 그 옆에는 四肢를 버리고 있는 거북(龜) 세 마리가 있고 U字形 木柵속 에는 진승이 있으며 그리고 이 밖에 岩壁에 수많은 魚類와 獸類가 陰刻 된 例를 볼 수 있다. 둘째 古新羅와 伽耶의 古墳에서 出土된 龜形土器 또는 龜形裝飾土器 등을 볼 수 있다. ① 皇南洞 味鄒王陵境內 第十六地 區 第三〇號古墳에서 出土된 「土偶裝飾長頸壺(琴奏樂像裝飾長頸壺)」이 있어 女人이 伽耶琴을 타고 있고 벌거벗은 男女가 背後狀態로 性交를

하는 모습의 土偶와 性器를 露出한 土偶 등이 附着되었으며 甕(蛇)이 개구리(蛙)의 뒷다리를 물고 먹는 形狀이 보이며 이밖에 거북(龜)·개(犬)·물고기(魚類)·새(鳥)·오리(鴨) 등 各種 動物群이 附着配置되었 다<sup>14)</sup>. ② 鷄林路 第四十七號古墳에서 出土된 人物像과 動物像 등과 神 龜像을 陰刻한 繪紋裝飾高環蓋가 있고<sup>15)</sup> ③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된 甕·장어·개·메기 등 물고기와 같이 神龜像 등 土偶로 裝飾한 高環 蓋가 있으며<sup>16)</sup> ④ 慶州博物館에 所藏된 人物像 動物像과 같이 神龜像 등 土偶로 裝飾된 高環蓋가 있어<sup>17)</sup> 注目된다. 이들 神龜形을 彫刻한 盤龜臺 岩刻畫와 神龜像을 裝飾한 土偶裝飾土器들은 모두 本稿에 問題로 삼은 皇南洞 味鄒王陵 前地域 C 地區 神龜塚에서 出土된 神龜形土器와 同一系 列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原始宗教인 固有信仰의 唯一한 經典이면서 또 거북(神龜) 信仰의 經典인 것이다.

## 2 角环 및 角坏받침

### (1) 角环 및 角坏받침의 形態

容器的인 坏身部와 이를 받치는 臺脚部로 區分되었는데 坏身部와 臺脚部는 別途로 分離되어 있다. 그리하여 坏身部는 墓槨 內的 土器群의 항아리(壺)속에서 나왔고 臺脚部는 護石 東北端에 設置된 構造物 옆에서出土되어 注目되는 바이다. 그리하여 坏身部와 臺脚部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도 하겠으나 이 兩者는 灰青色 器表面의 色彩와 陶質土器의 質感이 서로 같고 또한 臺脚部 위에 坏身部를 올려 놓으면 兩者의 數值的인 均衡이 서로 잘 들어 맞아서 角坏와 받침 등 兩者가 한 벌로 갖추어진 角坏环라 하겠다. 角坏 및 角坏받침은 胎土가 良質로 緻密하고 高火度에 窯成된 灰青色의 硬質이며 表面에 自然釉가 보이는 陶質土器이다.

① 容器的인 形態와 象形的인 形態……이 角坏 및 角坏받침은 名稱 그대로 牛角形으로 된 角坏를 高坏 등의 臺脚과 같은 臺脚形으로 된 角坏받침에 받쳐 놓은 點이 特異한 構造이다.<sup>18)</sup>

坏身部는 坏底部가 角形으로 狹窄하고 口緣部로 向하여 점차 벌어져 가고 口緣部에 이르러 더욱 벌어져 마침 頂승의 髑形(角形)을 하였다. 臺脚部는 高坏臺脚部와 같이 突帶文을 中間에 돌려 二段構造를 이루고 各段에 六個씩 透窓을 돌렸다. 그리고 이 脚部 위에 長方形의 臺上板을 놓고 그 板 위에 고리(環)와 받침대(支棒)을 特設하여 角形坏의 身部를 세우게 하였다.

그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角形으로 된 坏身部는 全長 一五、五cm 徑七、四cm이고 高坏形을 한 臺脚部는 全高 八、二cm이며 臺脚底徑 一〇cm 臺上板은 세로 一一cm 가로 八、二cm 厚 〇、八cm이다. 各部間의 數値 比例가 앞맛이 均衡이 잘 잡혀 있어 아름다운 器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臺脚部와 坏身部의 全身에 特別한 裝飾이 없고 素朴한 感이 들어 더욱 마음을 이끈다.

② 角形器의 發達樣相……角形器로 된 土器의 始初는 이미 新石器時



圖 2. 角坏 및 角坏받침

다. 이 같은 角形坏의 類例는 陶質土器로 된 牛角形의 角形坏들의 出土例가 많다. 特히 三國時代에 있어서는 古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서 陶質土器로 製作된 牛角形의 角坏가 多數出土된 것으로 알고 있다. 學術的인 調査에 依하여 出土된 것이 아니고 그 大部分이 盜掘이였거나 또는 出土地를 알 수 없어서 遺憾된 일이나 그 類例를 많이 볼 수 있어 角形坏의 發達樣相을 알 수 있다. 이들 角形器는 牛角形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角坏 自體만으로는 安全座를 取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角坏部에 脚部를 달아 安定座를 維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있다. 곧 ① 大邱 出土<sup>19)</sup>와 慶州博物館所藏品<sup>20)</sup>인 有脚角坏가 있는데 이는 角形이 曲線을 짓는 背後에 臺狀脚이 달려 있고 東亞大學校博物館<sup>21)</sup>과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所藏品인 馬頭飾有脚角坏<sup>22)</sup>가 있는데 이들 遺品은 角形坏의 狹窄한 先端을 馬頭로 만들어 裝飾하였고 역시 曲線을 짓는 背後에 두개씩

代부터이니 釜山 影島의 東三洞 貝塚에서 出土된 角坏形土器가 ①9 그元祖의 類例로 들 수 있겠다. 이어 靑銅器時代 鐵器時代를 거쳐 三國時代로 繼續된 것으로 推定된

의 발(脚)을 달았다. 또 ② 角环에 別個의 臺가 달려 「角环 및 角环받침」의 形式으로 改善되었으니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藏 角环臺一個 慶州博物館藏 角环 및 角环받침과 韓덕순氏 所藏品인 角环 및 角环받침 등의 類例를 볼 수 있는데 이들 「角环 및 角环받침」의 角环部는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牛角形으로 된 环部를 形成하고 「角环받침」은 臺脚部는 大體로 高坏의 臺脚部와 같은 透窓이 열린 圓筒形의 臺脚을 別途로 만들어 이 臺脚部에 牛角形의 角环를 꽂아 세우게 만들었다. 이는 곧 角环系統의 器形發達過程으로 陶質土器系의 角形坏의 發達相을 잘 알 수 있다. 角坏는 이밖에 金屬製品 漆器製品 青磁製品도 있다. ① 金屬製品으로는 金冠塚에서 出土된 金銅角形尊 昌寧校洞 第七號古墳에서 出土된 角坏銅器 등이 있다. 兩者 모두 角先端을 切斷處理한 것이 特色이며 特히 前者는 「蓋」를 달았고 後者는 「兩端에 고리(鑲)를 달아 끈을 피어 携帶할 수 있게 하였다. ② 漆器製品으로는 天馬塚에서 漆器 角坏가 出土되었는데 器身部에 鳳凰文을 彩繪하고 先端은 鳳頭形으로 處理하였다. ③ 青磁製品으로는 東垣美術館에 所藏된 高麗時代(西紀 一二世紀頃)의 것으로 青磁角盃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陶質土器系의 典型的인 角坏의 牛角形을 그대로 表現한 形態로서 內彎하는 曲線을 지우며 先端은 卍(卍) 모양으로 뾰족하고 口緣部로 벌어져 開口되었다.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角坏의 製作使用은 일찍이 先史時代에 始初하여 三國時代를 거쳐 後代에 이르기 까지 그 製作材料和 形態를 달리하고 變化시키어서 多様な 發展을 하였다.

(2) 「角环」가 지니고 있는 性格

皇南洞味鄒王陵前地域 C 地區 第七號古墳에서 出土된 「角环 및 角环받침」 그 出土經緯가 臺脚部와 坏身部가 한곳에서 出土된 것이 아니고 各 다른 곳에서 나왔다. 臺脚部는 護石 外 構造物과 같이 埋設되고 坏身部는 角坏의 口緣部를 깨어 향아리 속에 넣어 副葬하였다는 事實은 尋常치 않은 것이다. ① 角环 및 角环받침을 各各 分離 埋設한 것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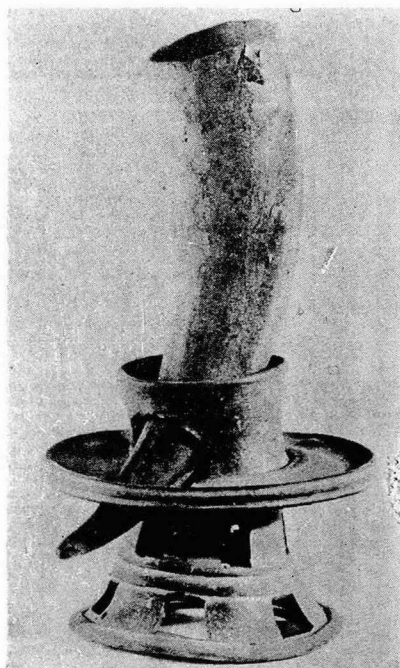


插圖15 角坏 및 角环받침  
(國立慶州博物館所藏)



插圖16 角环받침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所藏)

角环의 口緣을 고의로 깨어 항아리속에 넣어 埋設한 것 등은 當時 葬禮에 따르는 儀式의 一部로도 되고 한편 信仰上의 呪術的인 뜻도 內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角环의 起源과 發達이 各地域間 또는 各民族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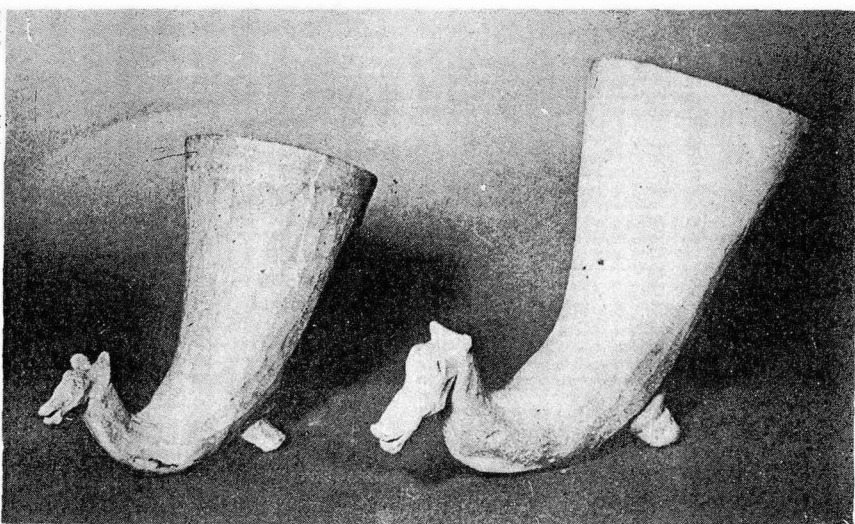


插圖14 馬頭飾有脚角环(釜山 東亞大學校 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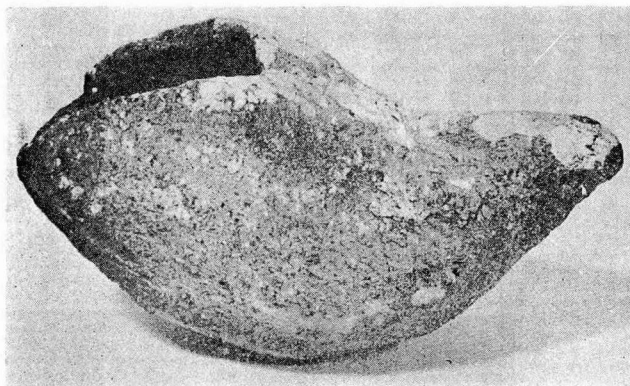


插圖12 角环形土器(釜山 東三洞貝塚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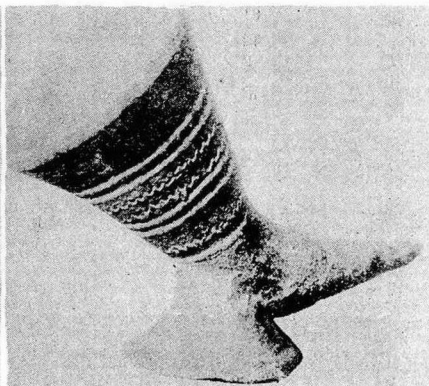


插圖13 有脚角环(大邱出土)

相互關係도 있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여러곳의 各民族間에 發生하고 또 發展한것이 事實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角形容器도 新石器時代에 發生하여 그後 꾸준한 發展을 하였고 動物崇拜思想에서 부터 始初한 것일 것이다. 先史時代人들은 各種 動物을 崇拜하고 信仰의 對象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神獸와 神鳥의 形態가 先史時代 三國時代의 器皿으로 表現되는 例가 많았다. 곧 虎形器·馬形器·鹿形器·鳥形器 등이다. 角环도 이러한 例들 中의 하나이다. 往時 狩獵人들에게는 動物의 髑이 신기하고 버리지 못할 것으로 愛用하던 것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인들은 動物의 髑을 직접 器皿으로 使用하였고 角形을 본딴 角形器皿을 만들어 使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角环는 곧 角形器皿의 一例로 古代人의 儀式에 使用되던 儀典器라 하겠다.

그리고 先史時代 無文土器의 牛角形 把手가 三國時代에 들어 와서도 그 古墳에서 出土되는 軟質 赤色 土器系의 土器 또는 硬質系 陶質土器系의 土器에 달려 있는 類例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牛角形 把手도 단순히 把手로서의 目的 以外에 어떠한 思想的 信仰의 意匠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다.

### 三、結 論

却說 皇南洞古墳에서 出土된 「神龜形土器」와 「角环 및 角环받침」을 中心으로 하여 上述한 巴로 異形土器로서의 形態의 發達과 意匠의 性格을 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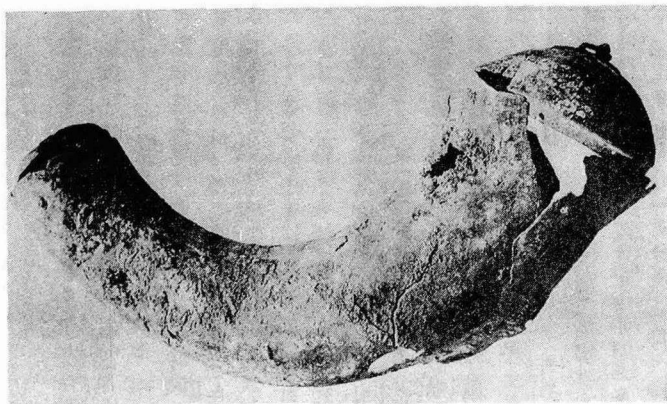


插圖17, 〈慶州金冠塚出土〉金銅角形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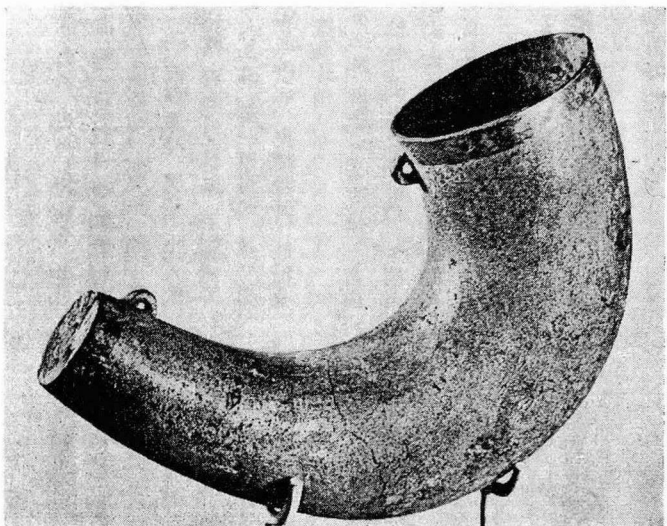


插圖18, 〈昌寧 校洞 第7號墳出土〉角形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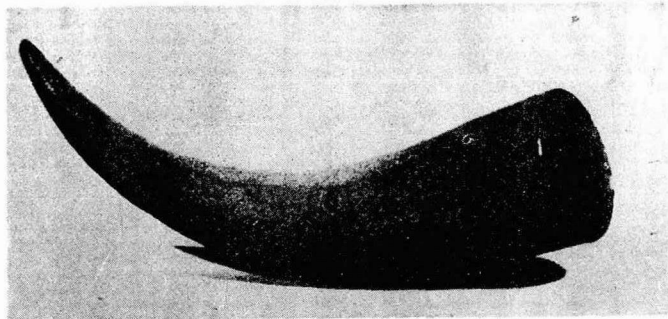


插圖19 〈東垣美術館所藏〉青磁角盃

于先神龜塚은 瓢形墳의 性格을 보이면서 多槲式古墳으로서 이 新羅古墳의 構造發達上에 木槲積石墳의 初期의 것이다. ① 神龜塚의 第一墓槲(概報第一號古墳)과 第二墓槲(概報第二號古墳)은 瓢形墳의 形式을 取하고 다시 第三墓槲(概報第三號古墳)이 添加되어 多槲式古墳을 形成하고 있고 또 이 神龜塚의 西北에 隣接한 多槲式石槲墳의 護石이 神龜

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는 이들 神龜形土器와 角環 및 角環받침에 대한 編年上의 問題를 살펴보고 이들 土器가 지니고 있는 問題를 要約함으로써 이에 結論을 내려보고자 한다.

첫째 神龜形土器의 編年問題를 살펴 보기로 한다. 神龜形土器는 이미 上述한 바 있지만 그 頭部의 如鳥如龍如獸의 形態나 疾風에 나부키는 모양의 平行線을 取한 갈기의 모습 등의 技法은 마치 高句麗古墳인 通溝地方의 舞踊塚과 三室塚 등의 靑龍·白虎·朱雀 등의 神獸像과 天馬·天鳥 등의 壁畫의 技法에 相通되는 것이며 또 天馬塚(第一五五號古墳) 出土 白樺樹皮製 障泥의 天馬圖의 技法에 相通되는 것이다. 그리고 神龜塚 第三墓槲(概報 C 地區 第3號古墳)에서 神龜形土器와 같이

出土된 透彫瓔珞飾高環形土器가 金鈴塚 出土의 것과 同一樣式이고 또 이 神龜形土器가 金鈴塚에서 出土된 騎馬人物像土器와 같은 技法과 手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新羅의 天馬塚이나 金鈴塚이나 高句麗의 舞踊塚과 三室塚이 文化的인 一連의 關係가 있다. 그리하여 이를 中心으로 해서 神龜形土器의 編年을 알아 볼 수 있겠다. 이 神龜形土器와 天馬塚 出土天馬圖와 그 技法이 같으니 或 神龜形土器와 天馬圖와는 그 年代를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神龜形土器를 中心으로 이 古墳에서 出土된 土器가 마치 金鈴塚에서 出土된 土器의 그 形態와 技法이 同一하여 相互年代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나 神龜形土器가 出土된 神龜塚과 天馬圖가 出土된 天馬塚이나 騎馬人物像土器가 出土된 金鈴塚과는 그 古墳의 構造와 出土遺物의 綜合的인 考察로 先後의 年代差가 있다.

塚의 護石을 避하여 D字形으로 둘러져 있음으로 해서 古式을 보이는 石槨墳에 앞서서 神龜塚이 築造된 것으로 推定되어 이는 四世紀의 古墳이며 三世紀後半期까지 올라갈 수 있는 古墳이다. ② 또 第一墓塚은 많은 馬具類와 武器類가 出土되고 있어 그 被葬者가 男子 主人公임을 알 수 있다. 第二墓塚은 馬具 또는 武器의 副葬이 없고 太鏢式耳飾의 모습으로 보아 第二墓塚의 被葬者는 婦人으로 第一墓塚과 第二墓塚은 거의 같은 年代에 築造된 瓢形墳의 形式을 取한 夫婦塚의 性格을 하고 있고 第三墓塚은 그 後에 다시 添加된 家族中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에 多柳式 家族墓의 性格을 形成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데 第三墓塚은 第一墓塚과 第二墓塚과는 年代의 相距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第一墓塚과 第二墓塚에는 護石에 附設된 煙筒式 構造物(日本の 壺形埴輪과 圓筒形埴輪의 元祖로 推定된)이 高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第三墓塚에는 이와 같은 構造物이 없고 또한 第三墓塚의 副葬品이 더욱華麗하며 그 遺物의 樣式에 있어서도 뒤의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니 第三墓塚의 築造年代는 第一墓塚 第二墓塚이 三世紀後半부터 四世紀前半에 해당된다면 第三墓塚은 四世紀中半頃으로 推定된다. 以上과 같이 神龜塚의 年代推定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神龜形土器가 四世紀後半頃の 것으로 보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神龜形土器系列의 異形土器가 騎馬人物像土器를 出土한 金鈴塚時期까지 繼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神龜形土器의 造成된 技法上에서 그 編年定立에 焦點이 되고 있는 頭部의 怪異한 形態와 頭部에서 尾部까지 이르는 平行線을 取하며 나부끼는 「갈기」의 表現이 天馬塚(皇南洞 第一五五號古墳)에서 出土된 障泥의 天馬圖와 白樺樹皮帽의 騎馬人物圖 또는 鳳凰圖等과 同一樣式으로 해서 이와 같은 技法이 神龜塚으로부터 天馬塚까지 繼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神龜形土器 또는 天馬圖에서 볼 수 있는 中國의 六朝 技法의 始源型을 우리 나라에서는 高句麗의 舞踊塚과 三室塚에서 찾아야 하겠다. 이 舞踊塚과 三室塚은 日本人學者에 依하여 五世紀後半乃至는 六世紀頃인 高句麗의 平壤移都 以後의 構築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古墳의 壁畫와 構造의 考察을 통하여 高句麗의 平壤移都以前인 四世紀에 築造된 古墳으로 推定되고 늦어도 五世紀初를 下할 것이라 推定하고 있다. 곧 古墳壁畫의 內容 配置 表現等의 原始繪畫의 要素를 아직 脫皮하지 못한 高古한 것으로 그 年代는 四世紀頃으로 推定되며 神龜塚 出土의 神龜形土器의 起源의 位置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둘째로 角坏 및 角坏받침의 編年問題를 알아 보기로 한다. 「角坏 및 角坏받침」은 그 構造로 보아 角坏와 角坏받침이 別個로 된 것은 이러한 構造와 樣式을 갖춘 것 中에서는 가장 앞서는 것으로 느껴지며 「角坏 및 角坏받침」이 出土된 皇南洞 味鄒王陵前地域 C地區 第七號古墳은 또한 神龜塚에 隣接하고 있고 또 出土遺物도 古式에 該當하며 또 神龜塚의 境遇와 같이 煙筒式 構造物로 推定하는 構造物을 隨伴하고 있으며 角坏 및 角坏받침의 出土經緯 또한 角坏는 墓塚內에 副葬된 短頸壺 속에 나타나고 角坏받침이 煙筒式 構造物 속에서 出土되어 그 呪術的인 出土樣相 등으로 보아亦是 神龜塚과 거의 같은 同年代가 아니면 좀 늦은 年代로亦是 四世紀後半期로 推定된다.

〔註〕

- (1) ④ 慶州皇南洞一五五號古墳發掘略報告(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三)
- ⑤ 天馬塚發掘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四)
- (2) ④ 慶州皇南洞九八號古墳(北墳)發掘略報告(文化公報部 慶州史蹟管理事務所刊)(一九七五)
- ⑥ 慶州皇南洞第九八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六)
- (3) 拙稿 伽倻地域 土器의 研究 「圖版五 洛東江沿岸出土 異形土器條 新羅伽倻文化第二輯(一九七〇)
- (4) 管狀注出口의 構造에 있어서 土製管狀으로 되었는 데 특히 先端에 이르러서 管先部를 斜線으로 깎아서 注轉에 便利하고 注出에 있어서 힘차게 물이 湧出轉할 수 있도록 造成한 것은 注目되는 바다.
- (5) 大邱 達城公園에서 出土된 龜形土器의 樣式系列의 것이 高麗 또는 李朝의 陶磁器에도 보인다.

- (6) 林己奈夫「殷・周青銅器の文様」世界美術全集 二二 pp. 一六五—一七二 (一九六六)
- (7) 渡邊素舟著 東洋文様史「第二章 靈獸形——第三節 虺龍・蛟龍・蛇龍・螭龍・黃龍・青龍・赤龍・白龍・玄龍——」pp. 一三五—一四六(一九七二)
- (8) 周采赫「거북신앙과 그 분포」韓國民俗學 第六輯 pp. 一九—四九 民俗學會刊(一九七三)
- (9) 趙子庸「龜船圖」民學 第一輯 民學會刊 pp. 八八—九三(一九七二)
- (10) 李朝の美Ⅱ民藝「圖版 一四四 神龜圖 同解說」條 日本 毎日新聞社刊(一九七三)
- (11) 淮南子에 새(鳥類)·짐승(獸類)·물고기(魚類)·거북(龜類)을 낳았다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 ① 「羽喜生飛龍 飛龍生鳳凰 而後鸞鳥庶鳥 凡羽者以次生」
- ② 「毛積生應龍 應龍生建 而後麒麟庶獸 凡毛者以次生」
- ③ 「尚介鱗生蛟龍 蛟龍生鯤鯁 而後建邪庶魚 凡鱗者以次生」
- ④ 「介鱗生先龍 先龍生元龜 而後靈龜庶龜 凡介者以次生」
- (12) 渡邊素舟著 東洋文様史「第二章 靈獸形——第一〇節 玄武——」條 pp. 二四六—二五二(一九七二)
- (13) 拙著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神龜形土器」pp. 一七一—一七二 嶺南大學博物館 刊(一九七五)
- (14) 新羅名寶「圖版 五九—六一 同解說」條 參照。
- (15) 國立慶州博物館名品選「一三、人形動物文高坏蓋 同解說」參照
- (16) 秦弘燮 韓國美術全集「三、土器·土偶·瓦博」三〇、물고기 土偶가 붙은 平瓦·同解說」pp. 一四六(一九七三)
- (17) 秦弘燮 前掲書「四六、土偶장식 平瓦의 高坏·同解說」pp. 一四七—一四八(一九七三)
- (18) 拙稿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角环 및 角坏받침」pp. 九五—九八「意匠土器와 象嵌유리九玉」pp. 一六九—一七六 參照(嶺南大學校 博物館 刊)(一九七五)
- (19)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原始美術編「韓國의 原始美術—新石器時代—」pp. 五—七「圖版 三八 角环形土器—同解說—」條(一九七三)
- (20) 慶州金冠塚及其遺寶(古蹟調查特別報告 第三册) 第七圖「朝鮮日本發見角形土器」pp. 四五(一九七四)
- (21) 慶州博物館「圖版 五二、角环」條 參照。

- (22) 秦弘燮 韓國美術全集 三、土器·土偶·瓦博篇「六一、말대加里裝飾 甁잔」
- (23)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二七、말대加里 장식 甁잔」條(一九六七)
- (24) ① 秦弘燮 前掲書「六八、甁잔 받침」條  
 ②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二四、甁잔 받침」條
- (25) 國立慶州博物館名品選「二〇、角环·同解說」條
- (26) 月刊文化財「퀵다스」蒐集韓國陶磁器目錄一條 一九七四年八月號
- (27) ① 慶州金冠塚及其遺寶 本文 一册(古蹟調查特別報告 第三册)「金銅角形尊」pp. 五九—六一(一九七四)  
 ② 濱田青陵 慶州의 金冠塚「第一三 金屬製容器 其他」pp. 八三—八八(一九三三)
- (28) 穴澤味光·馬目順 昌寧校洞古墳群「校洞七號墳」pp. 三三—四二、考古學雜誌 第六〇卷 第四號(一九七五)
- (29) 天馬塚(文化財管理局刊)「角环」pp. 一四七(一九七四)
- (30) 韓國美術二千年(國立中央博物館刊)「二九 青磁角形盃—同解說—」條 參照(一九七三)
- (31) 神獸斗 神鳥의 形態를 한 先史時代의 器具로 ① 雙鳥竿頭飾(國博 所藏)  
 ② 農耕文 楯形青銅具(大田市 出土 國博 所藏) ③ 動物文肩甲(日本 小倉 氏 所藏品) ④ 馬形帶鉤斗 虎形帶鉤(永川 漁隱里 出土 國博 所藏) ⑤ 青銅 製鹿頭(國博 所藏) ⑥ 青銅馬(國博 所藏) 등의 類例를 볼 수 있다. 그리고 三國時代의 器具로서 古新羅의 ① 金鈴塚 出土 騎馬人物像土器 ② 馬刻文 土器 ③ 土偶裝飾高坏 ④ 皇南洞第一五五號古墳 出土 漆器鴨形坏 등의 類 例가 있고 伽耶의 馬形土器·鴨形土器·鳥形裝飾耳付盃(東亞大博物館 所藏) 등이 있다.
- (32) 拙著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第一節 第一·二·三號古墳(神龜塚)」pp. 六〇—八四「第二節 古墳의 附帶 遺構—煙筒式構造物—」pp. 一四五—一四六(一九七五)
- (33) 拙著 前掲書「第六章 考察—第一節 古墳構造上. 로 본 墓制—」pp. 一三—四一(一九七五)
- (34) 天馬塚發掘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刊)「白樺樹皮製天馬圖障泥」pp. 一—五「白樹皮製彩畫板 二個」p. 一六三(一九七四)
- (35) 朱榮憲 著 高句麗의 壁畫古墳「第一項 環文塚·舞踊塚·三室塚の年代」pp. 一三八—一四二(一九七二)

(嶺南大學校博物館)